

2018년 11월 20일, 제주시 아라2동 금천마을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양우종(남, 1934년생, 제주시 아라2동)

- 제주시 아라동 금천마을에서 출생, 5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다.

• 줄거리: 고종달은 물혈의 맥을 끊어버리는 풍수사였다. 고종달이 제주도 동쪽으로부터 물혈을 끊어 왔기 때문에 제주도 동쪽에는 물이 나지 않는데,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혈을 끊어 오던 중 조천읍 행기물의 맥을 끊지 못했다. 조천읍 행기물의 신이 밭을 가는 농부에게 자신을 숨겨달라 요청하자, 농부가 바가지에 못의 물을 길어다가 쟁기 옆에 놓고 우장으로 잘 가려 놓았기 때문이다. 때문에 조천읍 행기물을 기준으로 제주도 서쪽에는 물이 나는 곳이 많다고 한다.

[조사자] 아라동에 그래도 물덜이 좀 있잖아예? 물 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혹시 고종달 얘기 들어보셨우과?

[제보자] 아, 고종달을 얘길 조끔 들긴 들었는데.

[조사자] 어르신덜한테마씨?

[제보자] 응, 들었는데 어떻 헷나허믄. 저 동쪽으론 물 나는 부락이 없엉 어떻 헤엿나믄 고종달이가 어디 넘어오다가 이제 밧을 가는다. 이 고종달이란 사름이 이젠 허는다. 고종달이엔 허는 사름이 물을 끊어부는 그런 풍수랏던 모냥이라 말을 들어보민.

그러니까 이젠 행기물이라고 허는다. 어디 조천읍 어디 행기물이엔. 겐디 그 이젠 밧을 가는디, 어떤 사름이 이제

“나를 감추와 달라.”

고 허니까. 박새기에 물을 길어 갓다가 쟁기, 이제 그 소 밧 가는 쟁기 율에 이제 굽으렌 헤네, 그 비 오민 이제 우장이라고 새, 띠로 멘드는 그 거시기를 덮어네, 그디를 감추어네 그 순간 살려와 젠. 겐 이젠 서더렌 물이 많은 디가 많은디. 끄치지를 못 헤연 서더렌 많이 나곡, 동더렌 물이 안 났다. 이런 말을 들었주.

게난 우리 동네꺼지 오질 안현 때, 이제 그 귀신이, 행기 그 물귀신을 지켠 헤였다고 영 헌 말을 들었는데. 그런 전설이지.

• 핵심어: 고종달, 풍수, 조천읍, 행기물, 박새기(바가지), 쟁기, 우장(비옷), 물귀신, 소, 밧(밭)